

# 아시아 작가들 광주서 세계 평화 노래한다

### 아시아문학페스티벌 6~9일 문화전당...11개국 23명 초청 대인시장 문화난장·낭송제·문학상 시상식·시민 백일장 등

“평화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 하자.”  
아시아 각국의 걸출한 작가들이 광주에 모인다.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장 백낙청)이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아시아문학대제전은 10개국 작가 11명, 한국 작가 12명이 공식 초청됐다.  
몽골 문학의 거장이자 세계적 인문학자인 담딘수렌 우리양카이, 17세에 군에 자원입대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소설가 바오 닌, ‘중국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루쉰문학상(제1,2회) 수상자인 연젠커, 무소우의 작가로 알려진 미안마의 타사 니 등이 참가한다.

배를 한다.  
둘째날 7일은 개막식과 포럼이 펼쳐진다. 오전 10시에 개막식이 열리고 오후 2시부터 평화포럼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를 주제로 두 개의 발제가 이어진다.  
첫 번째는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오키나와와 사키야마다미와 팔레스타인 자카리아 무함마드가 발제를 한다. 문순태 소설가와 오수연 소설가가 패널로 나서고 박효환 시인이 사회를 본다.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를 주제로 방글라데시의 사힌 아크타르가 발제를 인도계 영국작가인 프링 바실과 이경자 소설가, 신유목 시인이 패널로 나선다.  
특히 오후 6시부터는 대인시장에서 ‘아시아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아시아 별들의 밤’을 주



한강(한국) 바오 닌(베트남) 연젠커(중국)

제로 아시아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 시민들이 작품을 낭송하고 음식을 먹으며 우정을 나눈다.  
8일에는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작품을 낭송하는 ‘아시아 문학낭송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평화의 여러 갈래 길을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 오전 10시에 ‘아시아 작가 팟캐스트’를 녹화하며 중국 소설가 연젠커와 소설가 심운경, 미안마 시인 틱사 니와 이영진 시인, 몽골 시인이자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담딘수렌 우리양카이와 이영선 작가가 대담을 나눈다.  
오후 2시에는 ‘작가 대담-아시아의 평화를 위

하여’가 펼쳐진다. 나희덕 시인의 사회를 보고 문태준 시인이 진행하며 베트남 소설가 바오 닌, 팔레스타인 소설가 아다니아 쉬블리, 대만 소설가 사만 란보안, 필리핀 소설가 호세 달리세 등이 참여한다.  
오후 6시에는 폐막식이 개최된다. 폐막식에서는 아시아문학상 시상식과 2018 광주선언문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페스티벌 기간 아시아문학촌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5층 시 짓기 학생 시민 백일장이 열린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이 문학에 대해 논하고 담소를 나누는 아시아문학사랑방 ‘크로스낭독 공감’도 열린다.  
또한 사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역문학 행사도 장흥과 담양에서 개최된다. 1일 장흥동학농민기념관에서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대화’, ‘찾아가는 문학교실’이 예정돼 있다. 3일 담양문화예술회관에서 ‘틱사니와의 대화’와 담양시 가문화체험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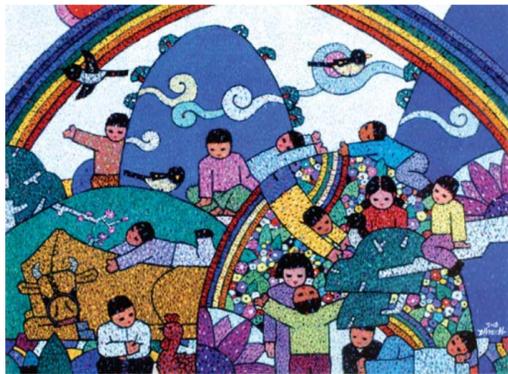
## “남북 평화 시기 맞물려 의미 남달라” 팔레스타인 작가 참석 눈길

오는 6일 개막하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앞두고 개최된 간담회에는 두 명의 팔레스타인 작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팔레스타인 작가인 자카리아 무함마드(왼쪽)와 아다니아 쉬블리가 주인공.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되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 시의 좋은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인데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불씨가 지펴지는 시국과 맞물려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그는 아랍작가연맹과 팔레스타인 작가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지 ‘알 카렐’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고백적이고도



진밀적인 시를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을 향한 집단의식을 펼쳐 보인다.  
이어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이 같다”고 밝혀 웃음을 끌어냈다.

한편 팔레스타인 비르제이트 대학 객원교수이자 소설가,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다니아 쉬블리는 “팔레스타인과 한국과는 신화적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아마도 이것은 고대시기에 두 나라가 활발하게 교류를 했기 때문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영어로 번역된 ‘토지’를 읽었는데 팔레스타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한국문학을 읽고 난 후 감동이 남아 있어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다니아 쉬블리는 “한국 문학에는 서구 문학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제3세계,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식민지라는 어두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심 가득

### 박주하전 1~7일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

서양화가 박주하 작가의 트레이드마크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색감의 ‘점’이다. 수많은 점들은 자연스레 어우러져 화사함을 전달하며, 인물과 풍경에 입체감도 부여한다. 작업 초창기부터 우리 전통 민화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민화의 재해석을 통한 작품으로 사랑받아왔다.  
박주하 작가 개인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올 신작들은 천진무구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바닷속을 유영하기도 하고, 소를 타고 들판을 지나기도 한다. 일곱빛깔 무지개, 하늘 높이 치솟은 나뭇가지도 아이들의 놀이터다. 새, 닭, 꽃과, 나무

등 자연 풍경은 아이들의 근사한 친구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과 자유로운 움직임은 동심으로 돌아가고픈 어른들의 마음을 깨운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박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1987년부터 다양한 초대전과 그룹전에 참여해 왔다. 전남대·호남대·동신대 교수를 역임한 박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형 21, 신작전, 불휘 기쁜전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오픈 행사 1일 오후 6시. 문의 062-232-71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냥** 11월호 시간여행 하기 좋은 곳은?

### 과학의 대중화 이끄는 천문학자 이명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 가을, 아직은 좀 더 붙잡아두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안고 가을여행을 떠나보자.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키냥’ 11월호 특집은 ‘시간여행 속으로’다. 시간여행은 매력적이다. 광주 양림동과 남원 서도역, 군산 근대건축은 1930년대 시간속으로 여행자를 이끈다. 순천 낙안읍성과 경주 양동마을 역시 시간이 멈춘 듯 방문객들을 시대 속으로 안내한다. 소설과 영화속 시간여행은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곳,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신남도택리지’가 이야기골 곡성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고장 곡성은 설화속 주인공 심청이 마을과 전설 속 도깨비 마을, 섬진강 기차마을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섬진강변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증기기관차, 자전거길은 힐링을 안겨주고 참깨랑과 은어튀김 등 먹거리도 풍성하다. 깊어가는 가을, 곡성의 매력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과학의 대중화를 이끄는 전파 천문학자 이명현이다. 과학저술가이자 과학책방 ‘갈다’ 대표인 이명현(55)씨는 어릴 적 아폴로 11호와 금성에 매료돼 천문학자 꿈을 키웠고, 지금은 글과 강연을 통해 과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과학책방 ‘갈다’를 운영하며 과학과 문화의 접목을 시도하는 그를 만나 별과 우주에 대해 물었다.

한지와 불이 만들어내는 선 조형으로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민정 작가와 4년동안 전곡을 돌며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여정을 마무리 한 피아니스트 김정원과의 인터뷰도 흥미롭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불리는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책의 아우라가 빛나는 예술전문 서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멘도’ 서점, 성(城) 안팎으로 펼쳐진 매혹적인 풍경 알바니아 등 해외 문화현장 소식도 전한다.

대하소설 ‘혼불’의 흥이 담긴 전주 최명희 문학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박인천 회장 자택이었다가 최근 시민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금호 시민문화관’도 가을이 가기 전 다녀올 곳으로 추천한다.

이외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2018년을 마무리 한 KIA타이거즈의 올 시즌을 돌아보고 티 소릴리가 전하는 그윽한 흥차 이야기, 일상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청춘들을 들여다보는 ‘트렌드 따라잡기’ 등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면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 단열소재 · 맞춤형디자인 · 2중복합단열 · 내진보강

**특허공법**

시공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